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7. 14.(화) 11:00 (지면) 2026. 7. 15.(수) 조간 배포 2026. 7. 14.(화) 06:00

인공지능(AI) 시대, 해양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 7. 15.~16. 인천에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7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시대, 해양의 미래(The Future of Ocean in the Era of AI)'를 주제로 해운·물류, 스마트 항만, 해양관광 등 주요 분야별 6개의 세션과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첫째 날(15일)에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에 이어 ▲해운·물류 – 인공지능(AI)과 국제 네트워크, ▲해양관광 – 인공지능(AI) 시대 해양관광, ▲스마트 항만 –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과 스마트항만의 미래, ▲해양환경과 에너지 – 해양에너지와 인공지능(AI) 등 4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에는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주시현 현대차·기아 상무가 나서 인공지능(AI) 시대에 해양수산 분야에 발생할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 (최재붕 교수) AI 전환에 따른 해양도시의 사회적 과제와 변화상
(주시현 상무) AI 기술력을 활용한 항만·물류 혁신과 해양모빌리티 적용방안

둘째 날(16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양도시 –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도시, ▲인천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특별세션에서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외에 참가자들이 해양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항만에서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보행 로봇, 화물을 직접 분류·적재하는 팔렛타이징(Palletizing) 로봇 등 산업용 로봇과 아이스크림 로봇, 바리스타 로봇, 캐리커처 로봇 등 일상생활에 활용될 다양한 로봇의 시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해양수산 분야 변화를 주제로 한 대학(원)생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이 해양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병구 (051-773-521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자현 (051-773-5221)
	인천항만공사	책임자	처 장	박원근 (032-890-8210)
	물류전략처	담당자	과 장	이준엽 (032-890-82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